

## 낙심하지 아니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답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세상에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고 내 개인의 재앙도 막기를 원하신다. 그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재앙도 막아주기를 원하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재앙을 7번 막으셨을때마다 시대에 맞는 종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7RT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 갔는데 그가 애굽을 살렸다. 이후에 400년지나니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적응하라고 성경에 기록해놓았다. 지금은 정신문제 시대, 증가하고 있고 각종 영적문제, 중독문제가 계속 올라갈것인데 아무도 부인 못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대만 그런것이아니고 답은 복음 하나뿐이다. 시간이 걸려도 답은 복음하나뿐이라서 이 곳으로 부르신 것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다.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음을 누리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 인생에 성취되게 하시고 증인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 주시는 것이다.증인은 말로되는 것이다. 말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처럼 시대적인 복음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무슨 힘 있겠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가 갖지 못한 말씀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분명히 애굽은 망했어요. 7년 흉년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요. 적어도 애굽 주위에는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막았어요 요셉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명의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와 계명을 받았다. 형들은 그것 때문에 애굽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으신 것이다. 룯도 만일 이 언약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6명만 더 복음을 전했다면 소동고로마 안망했을 것이다. 눈에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이 되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진짜 말씀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좋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다.

### 1.낙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때가 되면 거두리라. 잘 알고 이해하고 은혜받는 말씀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 포기 하지 아니하면 때를 줘서 이를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이다. 세상에 좋은일 굉장히 많이있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귀한일이다. 오늘 읽은 것은 성경이기에 아무래도 하나님과 관련된 선일 것이다. 착하게 하는 일을 세상에 서 하는 일을 제외 하는 것은 아닐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일을 말한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자, 선하냐 안선하냐?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일은

구원일 것이다.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선한일은 없다. 선을 행하라 이말은 구원을 행하라는 말이다. 구원은 언약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창4:7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네집 문앞에 었드릴 것이다, 죄는 사단을 말한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네 집앞에 었드려 있을 것이다. 사단을 꺾어야 하는데 선을 행하면 사단이 꺾여지니 선은 약속의 피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의 피를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행하는게 뭐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것이 뭐냐 내가 누리는 것이다. 내가 고백을 하고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게 행하는 것의 근본, 출발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을 행하는 것이다 이 선을 행하면 그말이다. 이 선을 행하되 낙심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올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언약잡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7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것이라고했다. 옛날에 복음 없이 자유함을 못누릴때는 놀렸다. 그런데 부정적인것만 말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언약해도 최선을 다해 언약을 심으면 언약안에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우리가 언약하여 육신의 것을 심지만 언약을 심기에 잘못심기건을 바꾸어 버리신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얻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머리를 깨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하튼 이 언약을 계속 심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가장 힘이 난다. 자꾸 하고 싶어진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기도해도 안된다고 하는자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중단, 포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네게 좋은 때이니 계속 하라는 것은 헤가안되고 응답이 안되도 포기 하지 말아야 할이유는 답이 이거 하나니까 계속 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끝이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언약하기에 언약을 주셨다. 내 힘으로 안되기에 언약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할테니까 따라오라. 그 언약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죽으셔서 완성해놓으신 것이다. 그 언약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없다. 우리를 너무 잘아시기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완성된 언약이기 누리기만 하면되는데 때가 이르면 된다. 반드시 인생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문제를 정복하고 무조건 그리스도면 끝이라는 완전증이이 되기를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다. 우리 모두에게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2.자기발견

빌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다. 8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것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 이라고 하였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진 바울이지만 그것을 배설물로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굉장한 소원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안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야곱은 이것이 없어서 쓸데없는 고난을 당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발견을 몰랐다. 장차권이 이미 자기에게 와있는 것을 모르고 형에게 뺏으려고.. 자기가 누군지 발견을 못하니 고생한 것이다.

17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대인들중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밖에서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힘들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기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일 것이다. 특별히 믿는 다고 하는 사람중에 율법사상을 버리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내가 가진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말하지 말라고 오랫동안 마음에 둔 이야기를 한것같다. 너무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함으로. 더 중요한것이있다. 고전 4:1 사람이 마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이 말씀도 대단한 자기 발견의 말씀이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자라고. 너희는 내보고 이러쿵 저러쿵말을 해도 나는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사도냐고? 네가 예수님을 본적이있느냐? 나는 다메섹에서 봤다, 그것은 네 혼자 하는 소리지... 모든 사도들은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과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아니잖아... 네가 지금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돈 때문에 그렇지 않냐?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한다. 그래도 필요없고 나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자야.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해도 필요없다.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언약이된다. 내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셨다고 고백하라. 마땅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알 것이다 인간들끼리 싸움, 말다툼 개념으로 보면 사도바울의 처절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 한칸 위에서 보는 것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자, 너무나 공격이 심하고 하도 돈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한 것이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사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사례를 안 받았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복음에 상처가 갈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것이라고 말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하는것이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상급이 아니고 내가 안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상급이 뭐냐면 이 복음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베네딕트를 안 받는거야 이것 말고는 내게 상급이없어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한 것이다. 만일 다니면서 사례를 받았다면 보라 네가 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라고 할것이니..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대들지는 안았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공식적 핍박은 다른 사도들도 다 받았다 그런데 사도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고 40명이 결단을 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사도바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그러나 복음이 너무 날카롭고 정확한 말씀 유대인들이 할말이 없게 하고 하니 분통이 터지게 되니 바울을 공격한 것이다. 복음이 희미하면 절대 핍박이 없으나 정곡을 찌르는 복음을 가진 것이 진짜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인 것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반은 사도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되겠는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언약을 흔들릴 필요 없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다. 요셉은 형들이 그랬다. 그리고 이들은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길이 되게 하셨다. 바울을 가장 신란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믿음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그

들은 바울의 출생때부터 아는 사람들이다. 왜 할례를 받지못하게 하나 왜 믿음만이나고 대들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답을 주었다.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셨는데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나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으자야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마 참으로 한 차원 높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고전11:1 또 하나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인데 교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답 확실히 났고 100% 그리스도 인생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다. 나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틈이 없어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 100%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나를 따르면 그리스도께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바울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관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사도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자. 매우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누군가 하는 포인트이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자기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일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만드신다. 출발은 선을 행하면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다. 때가 이르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가 통하게 된다. 가슴이 통한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것이다. 이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에 되어진다. 이런 사람은 나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는 말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본받으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참 놀라운 자기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 답이다.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변화되어 모든 문제 정복한다. 우리도 새해에는 사도바울과 같은 응답받을 것이다. 그런 증거를 누리며 이런 빛의 이정표의 인생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를 누리라 잘 안될 수 있으나 지속하면 때가 온다. 어느날 하나님 소원은 하나뿐인데 그 소원과 가슴이 통하라. 그전에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 증거, 복음 전해도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꼈다. 그런데 하나님 소원 안에서 가슴이 통한 것이다. 드디어 이렇게 결과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답으로 온 것이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소망이 없다. 내 주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이기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진짜 기도하는 해이다. 축복 있기를 바란다.

기도 - 귀중한 말씀 주셨으니 응답 되어 포기 하지 않고 때가 되어 이루게 되고 근본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